

돈되는 힐링·휴양 일류상품 ... 지역 미래 먹거리로

생태 관광 섬·숲

전남을 대표할 수 있는 자원은 섬과 숲이다. 229개의 유인도를 포함한 2219개의 섬은 고립되거나 물과 교류하면서 다양한 문화를 만들어냈다. 섬은 바닷길을 여는 전초기지가 됐으며, 독특한 문화와 자원은 외지인에게 미지의 세상, 그 자체였다.

69만4787ha에 이르는 산림은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잘 보존돼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아메니티, 힐링, 치유, 휴양 등이 강조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완도 수목원의 동백숲, 장성 축령산의 편백나무 숲, 강진 초당림, 보성 윤제림 등이 대표적이다.

◇섬으로 지역경제 살리고 미래 제시=전남도는 지난 2월 말 민선 6기 브랜드시책인 '가고 싶은 섬' 가꾸기 2015년 사업 대상지로 여수 낭도, 고흥 연흥도, 강진 가우도, 완도 소안도, 진도 관매도, 신안 반월·박지도 등 6개 시·군 6개 섬을 최종 선정했다. 여수 화정면 낭도는 여수항에서 여객선으로 1시간 20분 소요되며 350여 명이 살고 있다. 공룡 발자국, 해수욕장 등 아름다운 경관과 지금까지 백을 이어온 당재 등 유·무형의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고흥 연흥도는 82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작은 섬마을로, 보성·장흥·완도를 볼 수 있고 몽돌해변, 갯벌, 백사장 등 전례의 자연경관이 자랑거리다. 특히 폐교를 활용한 전국 유일의 섬마을 미술관인 '섬 in 섬 연흥 미술관'에는 50여 점의 회화작품이, 마을 안길에는

진도 관매도·완도 소안도 등 6곳
생태경관·문화 관광 인프라 구축

장성 장산리 마을 숲 등 39곳
피톤치드 풍부 치유의 숲 조성

아름다운 벽화가 그려져 '미술'이란 독특한 컨셉으로 특화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평가됐다. 강진 가우도는 53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지난 2013년 설치된 출렁다리를 통해 도보로 갈 수 있다. 연간 200만 명이 찾는 다산 정약용 유적지, 정자박물관 등과 연계가 가능하다.

완도 소안도는 69명의 독립운동가, 20명의 독립유공자를 배출한 항일독립운동 3대 성지다. 항일운동과 관련된 인문역사 자원이 있고, 갯돌해변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상록수림이 2곳이 있다. 진도 관매도는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지역으로 후박나무, 굴솔나무 등 생태자원이 잘 보존된 섬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추진하는 '명품마을'로 지정돼 마을길 조성 등 일부 관광 인프라는 구축돼 있다.

신안 반월·박지도는 섬과 섬을 연결하는 1462m의 전사의 다리가 있어 바다 위를 걸어서 섬 속의 섬을 여행하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 마을 앞 당산에는 수령 400년 이상 된 느릅나무, 편나무 숲이



여수 앞바다의 다도해. 민선 6기 '가고 싶은 섬'을 브랜드 시책으로 삼은 전남도가 섬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고민하고 있다. 주민 삶의 질을 높이면서 섬을 세계 일류 상품으로 내놓기 위한 시도로 평가된다.

있어 2013년 전국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 공존상을 수상하는 등 자연경관이 우수하다.

◇'돈'되며, 휴양·치유 숲 조성=전남도 전체 면적(123만900ha)의 56.7%(69만4787ha)는 '녹색'이다. 다양한 나무들이 자연식생하거나 또는 '선각자'들에 의해 조립된 숲들이 전남 곳곳에 산재해 있다. 특히 최근에는 숲이 치유, 휴양, 힐링의 대명사로 부상하고, 전남이 '피톤치드'가 가장 많이 나오는 지역으로 알려지면서 전남의 숲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전남도는 동백, 편백, 소나무 등 기존 수종은 물론 향후 호두, 개암, 석류 등 수실류와 헛개, 황칠, 꾸지뽕 등 약용작물 등을 집중적으로 식재해 '돈 되는 숲'을 조성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민선 6기 브랜드시책인 '숲 속의 전남' 만들기 2015년 민간 공모를 통해 장성 황룡면 청년회에서 제출한 황룡면 장산리 마을 숲 조성 등 39개소를 사업 대상지로 선정, 모두 16억원을 지원한다. 사업 대상지는 청년회, 부녀회, 노인회, 주민자치

회, 새마을회 등이 신청한 사업 희망지 중 시·군 실무협의회의 1차 심사를 통과한 66개소에 대해 '숲 속의 전남 협의회'의 기술·교육 분과위원회 위원 5명이 심사해 선정됐다.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순천의 강정수변 공원숲 조성사업은 순천 서면 이장협의회 등 7개 단체 347명이 현재 축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운동시설과 황량한 개활지 7000㎡를 숲으로 만들 계획이다. 2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윤현석기자chadol@

고부가가치 자원... 전남 반세기 책임진다

기능성 화학·바이오

전남의 미래를 이끌 신산업으로 부상한 것이 기능성 화학과 바이오다. 석유화학·철강 등 기존 산업의 경쟁력 약화, 순익 감소 등의 위기 속에 이들 산업의 혁신과 함께 전남 미래산업의 또다른 축을 성장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여기서 전남도가 꺼내든 '카드'가 석유화학을 업그레이드한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와 전남의 자연생태를 근간으로 한 백신 클러스터라고 할 수 있다.

◇전남의 새 반세기 책임질 기능성 화학소재=여수석유화학산업단의 지난해 매출액은 0.95%, 수출액은 1.57% 증가에 그쳤다. 2006년부터 2013년까지 7년간 평균 매출액 성장률 20%, 수출액 성장률 24%과 비교하면 '급감' 수준이다. 이에 따라 광양만권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세계적인 생산설비 투자 과잉 및 중국의 저성장과 화학산업 자금률 상승, 중동 산유국의 화학산업 인프라 구축 등으로 여수산단 등 광양만권의 '범용 화학산업'의 전망이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 기능성 화학소재다.

석유 화학·철강 등 대체 산업
광양만 기능성화학 클러스터

화순에 생물의약품 연구센터
백신 개발·생산지원 중심점

이자전지 분리막, 휴대용 대기농성 보호필름 등 특수기능을 가진 것이 화학소재다.

특히 기능성화학소재는 대규모 장치산업인 범용 화학소재와 달리 생산설비가 제품 중심형, 소량 다품종 중심이어서 중소기업에서도 다양한 아이디어와 기술만 있으면 시장진입이 가능한 중소기업형 산업분야이다. 기술적 격차가 크고 기술 상호 간 유사성이 적어 모방 생산이 어려운 산업인데다 부가가치가 매우 높다.

전남도는 국내 기능성 화학소재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여수석유화학단지 및 광양만권 석유화학산업의 새로운 성장 돌파구로 광양만을 중심으로 '기

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미 지난해 4월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마련한 '광양만권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2014년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지난해 12월 국비 25억원이 반영돼 올해 6월까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서 타당성 조사용역이 진행되고 있다.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남도, 광양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함께 1310억원(국비 945억원 지방비 137억원)을 투입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세풍산업단지에 연구 기반 구축 및 사업화 R&D, 관련 기업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게 된다.

◇전남의 천연자원, 바이오, 그리고 백신 클러스터=전남도는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백신산업에 지역특화산업으로 지정해 화순 생물의약품산업단지 내에 생물의약품연구센터를 설립하고, 비임상 시험기관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과 상업용 대량백신 생산기업인 (주)녹십자 화순공장을 유치했다.

또 화순 백신산업특구의 생물의약품연구센터는 구



화순 백신산업특구 내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생물의약품연구센터. 전남도는 지역 미래를 이끌 신산업으로 기능성 화학과 바이오산업을 꼽고 있다.

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백신 전문기관이다. 지난 2002년 전남지역 생물의약품산업발전과 기업지원을 위해 구축된 국내 유일의 공공백신 위탁생산기관(CMO, Contract Manufacturing Organization)으로, 우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에 맞는 원액생산 시설, 완제품생산시설, 품질보증시설과 함께 연구개발시설 및 창업보육시설을 갖추고 있다.

전남도는 바이오산업의 핵심은 백신 클러스터의 비약적인 발전을 위해 정부의 '백신 3.0 프로젝트'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2020년까지 백신자금률을 80%로 제고하고, 백신을 국제경쟁력 세계 5위의 수출효과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16년부터 5년간 2300억원을 투입해 동물세포와 미생물실증지원센터, 실용화지원센터 등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부모님도 만족하고 자녀들도 찬성하는
농지연금제도가
더욱 좋아졌습니다!

가입비
폐지

이자율
인하

가입대상
확대

월 지급액
증가

땅이 드리는 평생월금
부모님께 효도하는
농지연금

소유농지를 담보로 부부 모두 평생연금보장
임대를 통한 추가소득도 가능

www.fplove.or.kr

상담문의 **1577-7770**